



봉우 컬럼

대한민국의 성장통

70 평생을 살면서 나는 격변의 대한민국을 보았다. 어렸을 때였지만 4·19혁명도 보았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도 보았다. 그럴 때마다 이 나라는 곧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슬아슬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것은 이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 피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지나며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 되었고, 이제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열서너 살 즈음이었던가, 자다가 ‘아악’ 하고 비명을 질러댔다. 다리에 일어나는 엄청난 통증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몸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서 겪는 통증이란단다. 그 통증을 겪어야 쑥쑥 자란다고 다들 말한다. 성장통은 말 그대로 성장하기 위한 통증이니깐.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아픔, 혼란을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전 심한 앓이를 하는 중이라 여긴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고 대한민국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 말할 한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태풍이나 해일, 번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악영향만 끼치는 것인가? 만일 태풍과 해일이 없다면, 번개가 없다면 생태계가 어찌 되겠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 풍년은 받아놓은 거라고 어른들이 말한다. 지금의 일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자. 더 나은 대한민국, 부정이 없는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성장통이라 여기고 받아들이자. 반듯한 나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반드시 이 나라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이다.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11월 28일부터 3박 4일 동안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에서 진행된 추계산상집회, 그야말로 뜻 깊고 은혜가 풍성한 집회였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미국 LA 세계야가 페션교회를 섬기는 김요한 목사님이 내한하셔서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80이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이 넘도록 설교하시며 열과 성을 다 하셨다.

총회장 목사님은 김요한 목사님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며,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셨다. 김 목사님은 30여 년 전에 총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그리 쉽게 했을까요? 그 답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명령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산 믿음이며(약2:17),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믿음+행함=역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하나님



2016 추계산상집회(11월 28일~12월 1일,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장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축복기도를 해주셨던 분이 다.(4면 참조)

집회 첫날 첫 시간에 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할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로 난관에 봉착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맞보았고, 난공불락의 예리고성도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기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히 11:17~19).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려 재가 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기적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게 다 맡겨야 합니다.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빌 4:6).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는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모두 기적의 사람이 되십시오.”

김요한 목사님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다. 새로운 30년을 뒀신다는 목사님과 우리 교단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활력을 불어넣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다. 일을 맡기실 때 어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랴! 오직 감사할 뿐이다.

기자 신효수

jesus7857@gmail.com



교단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을 안수해주었다



강사 김요한 목사님을 소개하시는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가족, 곤잘레스 목사님 등 교단 목회자들과 함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3:13~15)



일하기 전에 사람을 구하라

기업이든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동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힘ियो, 사람이 재산이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은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먼저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바로 12제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이 열 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리들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밋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막3:16~19).

저도 32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저를 도와 함께 일할 일꾼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눅10:2).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 밤이 맞도록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한대로 일꾼들이 대거 우리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교회를 일군 밑거름이었습니다.

언제 길러서 쓰겠습니까? 저는 사람은 길러 쓰는 것이 아니라 골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마13:47~48)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사람 얻기에 노력하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골라야 할까요? 첫째, 이질감이 없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다투게 되고, 사공이 많아져 배가 산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믿음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동행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갈라섭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바나바는 마가와 동행하여 구브로로 말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데 참고 동행했다면 그들은 대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질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동질성’입니다.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

이 하지 말라”(고후6:14).

어느 젊은이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담임목사가 꼭 심방을 부탁하기에 찾아갔더니 온통 안 믿는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었습니 다. 저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딱 한 마디, 믿는 사람하고 동업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는데 일이 아주 잘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직원 모두를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장사를 시작하니 잘 될 수밖에요.

신앙의 동질성, 마음의 동질성이 있는 자와 동업도 하고, 정치도 논하고, 결혼하 십시오. 그 것 이

소 리 나지 않 고 행복하 게 잘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시1:1).

둘째, 각 분야에 탁월하고 뛰어난 자를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자를 쓰라는 것이고, 그 분야에 최고의 사람을 쓰라는 것입니다. 대우하는데 힘이 들지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성장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최고의 브레인으로 인하여 최고의 통치권자가 될 수 있으며, 최고 전문 경영인의 등용으로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고, 최고의 교수진과 강사진으로 인해 최고 명문대학이나 명문학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고의 요리사로 인해 대박 음식점이 될 수 있지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관노출신인 장영실의 재능과 손재주의 탁월함을 보고 그를 데려다 벼슬을 주었습니다. 관료들이 다들 난리쳤지만 세종대왕은 이를 관철했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측우기,

자격루, 수포 등을 발명하여 과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자를 써야 합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보는 사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한 것도, 사도 바울을 택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물고기를 잡고야 말겠다는 베드로, 예수의 도를 좇는 사람들을 잡으러 포기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 성격 덕에 오늘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라 생 각 됩 니 다 (빌 3:13~14).

시작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함께 하기란 어렵 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구여일 해야 하고, 그런 자를 써야 합니다.

넷째, 일머리를 아는 자를 써야 합니다. 일꾼은 일머리를 아는 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 책으로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머리를 알려면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배워야 하고, 운전은 시내로 들어가 봐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늑은 낙타를 타고, 전쟁에 이기려면 백전노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시대 목사에게 절대 학력위주로 전도사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일을 할 줄 아는 자에게 직책을 주라고 합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일도 할 줄 모르

는데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넷째, 진실한 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천재적 기질이 있다손 치더라도 진실 되지 못하다면 그 능력이 어느 쪽으로 발휘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올해 슬로건이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입니다. 그런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옵니다. 365일 ‘매일매일 진실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진실이 중요합니다.

밑반찬이 좋아야 밥맛이 좋고 떡밥이 좋아야 고기가 물린다

몇 년 전에 어느 재벌이 부도직전에 이르렀을 때, 제가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말을 바꿔 타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가 제 말을 듣고는 사람을 바꾸어 기업이 회생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यो, 능력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여든을 넘기신 김요한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까지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까? 같이 손잡고 세계를 복음화 할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힘을 합하자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늘 사람을 찾고,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그가 단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류국가를 꿈꾸십니까? 대기업을 꿈꾸고, 교회 부흥을 꿈꾸십니까? 가문을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사람을 잘 고르십시오. 사람을 잘 만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전7:28).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블랙박스

폼짝마! 조작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로 우겨대는 자에게 입을 닫게 만드는 묘한 매력의 기계가 블랙박스다. 무척이나 자세히도, 너무 정확하게 음성까지 기록으로 남아 위압적인 자세로 큰소리치는 자의 위세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자들의 구세주가 아닌가?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발뻘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러한 블랙박스가 내재되어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심어놓으신 양심이 블랙박스이다. 자체 탑재된 이 양심의 블랙박스는 나 아닌 나의 항변에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롬2:15).

그러기에 자신을 책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려면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정직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이기심, 욕망, 감정이 공존하기에 양심이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을 지킨다’는 말처럼 방해요소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 정직함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가지려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직함의 상식적인 대답은 ‘거짓말을 하지 않음’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직에 관한 매우 협소한 의미이며 충분조건이 아니다. 정직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타인을 조종하지 않고 가식적인 것을

싫어하며 둘째, 공정하고 준법적이며 셋째, 부와 사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청렴함이며 넷째, 자신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약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하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는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사람의 착한 인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심오한 영적생활의 열매는 언제나 선한 인격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마5:16).

이 정직함이 자기 양심에 알려졌고 자신으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기에 사도바울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고백한다(행24:16). 성경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한다. 이를 위해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며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기도의 습관은 필수항목이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과 나의 영광, 그리고 나를 향한 선한 뜻을 빼앗기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닌가? “여호와와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곤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시24:3~5).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성경에세이 ::

스스로 깨닫기를!

여보게!
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네. 이 아버지는 왜 집 나간 자식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네.
이 아버지는 분명히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잘라 나갈 때부터 탕진하여 거지 신세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걸세. 그럼에도 아들 뜻대로 재산을 주고, 나가는 자식의 발목을 잡지 않았지. 또 집 나간 아들의 행방도 찾지 않았지. 그 아버지는 상당한 재력가이기에 사람을 풀어서 찾자면 아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일세.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바랬다네. 자신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랐던 거야.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들은 반발할 것이고, 또 나간 아들을 강제로 끌고 오면 다시 집을 뛰쳐나가는 일이 반복될 줄 알았던 거지. 정말 아버지 바람대로 아들이 깨달은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눅15:18~19).

여보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지. 우리가 진정 깨닫고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네.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네. 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네. 또한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맞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 아버지가 “그 돈 다 어쨌냐?”고 묻지 않았듯, 우리 하나님도 과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저 돌아와 준 것만 감사해하신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부모는 자식 앞에 늘 약자 아닌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신 거라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신다네. 깨닫고 어서 돌아오라고.

朋友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느 날 프랑스 약사인 쿠에가 잘 아는 사람이 몹시 아파 죽을 지경이니 약을 지어 달라고 하였다. 처방전도 없이 찾아온 그를 쿠에가 거절하자 그 사람은 시간이 늦어 병원문은 닫혔고, 몸은 아파서 당장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쿠에는 할 수 없이 그에게 통증과 는 무관한 포도당류의 알약을 지어주면서 ‘우선 이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일 병원에 가보라’ 하며 돌려보냈다.

며칠 후 쿠에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거 무슨 약인지 참 신통합니다. 다음날 병원 갈 필요도 없이 그 약 먹고 말끔히 나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다. 왜 그 사람이 나았을까? 이는 좋아질 것이라고 한 약사와 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낫겠구나 하는 정신적 확신 때문이었다. 훗날 ‘위약 효과(Placebo Effect)’ 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치료법

은 이렇게 발견된 것이다.

‘믿음’은 이렇듯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즉 모든 일의 결과는 기록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믿는데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다 해도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가(마13:23)? 가난한 자가 부해지며, 낮은 자가 높아지며,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죽은 자까지도 살아가는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일어난다. 믿음의 확신만큼 날로 향상되는 삶과 약속하신 영생의 복이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사랑&행복 ::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근래 불거진 국정농단사태로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 정신이 없습니다. 속속히 밝혀지는 의혹 속에 줄줄이 검찰로 소환되는 사람들을 보던 중, 과거 자신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밝힌 한 사람에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는 과거 유명 CF감독으로, 수년전 기독교 방송채널에서 자신은 4대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며, 학교는 안가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는 꼭 간다는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며 받은 한 통의 전화를 시작으로 성공한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범법행위로 법의 심판대 위에 서있으며, 과거 간증들은 한낱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보며 이와 같은 실수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경계를 늦춘다면 마음이 변질되고 욕심에 눈이 가려, 하나님의 방법과 신앙인의 책무를 경시하다 쉽게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아사왕도 처음에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양보란 없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국강성의 나라를 이루고는 말년에 교만에 빠져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을 욕에 가두고, 병에 걸려 의원을 의지하다 죽습니다. 과거의 신앙과 현재의 신앙으로 미래 또한 동일할 것이라 절대 과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질하기 전에 타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신앙의 초심은 잃지 않았는지, 삶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삶을 붙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소서”(시139:23~24).

김고은
khjc77@hanmail.net

:: 선교스케치 ::

:: 참된 깨달음 ::



목사님은 직접 인천공항에 나가
김요한 목사님(사진 왼쪽) 가족을 영접하셨다

지난 11월 26일 토요일 새벽, 목사님과 직원들은 환영 현수막과 꽃다발을 들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어떤 주의 종 이 방문해도, 하다못해 80노구의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로버츠(Roberts)목사님이 오실 때조차 공항에 나오신 적이 없는 목사님께서 직접 공항 입국장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목사님의 목회 초년병 시절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던 분이러 했다. 미국 나사(NASA)에 근무하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어 현재까지 LA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신 세계가가페선교교회 김요한 목사님(84세)이 그 분이데, 당시 인천 성전을 찾았던 김 목사님은 집회 중 귀신 한 마리를 쫓아내고는 어린 아이처럼 기뻐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를 본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 워낙 많이 보았던 장면이라 폭소를 터뜨렸는데, 이에 김 목사님은 단호한 어조로 '왜 웃는가? 2천 년 전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비천한 종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데 어찌 가만있을 수 있는가?' 하며 질타하셨다고 한다. 목사님은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 깊으셨던지 지금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하시곤 하였다. 당시 강사 목사님이신 김 목사님과 한 방을 쓰셨는데,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통에 목사님도 한숨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셨다고 한다. 그때 김 목사님은 '이 목사, 기도가 떠난 자에겐 기대할 게 없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찌 보면 목사님의 18번 말씀,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라는 목사님의 신앙철학에 베이스가 되어주셨던 목사님이라 생각된다.

목사님은 워낙 빈 지가 오래되어 얼굴도 가물가물하다며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김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다가 공항으로 나오셨다며 입국장에 서서 김 목사님 일행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셨다.

도저히 84세의 노인이라 볼 수 없었다. 김요한 목사님은 매우 정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일단 장거리 여행에 지친 김 목사님 일행을 숙소로 모셔드렸다. 목사님은 직접 호텔 방까지 안내해드리며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모시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요 13:20)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진실한 자세였다.

그날 저녁식사 후 두 분은 식당에서부터 오랜만의 해후를 받기며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자리를 사무실로 옮겨 밤 10시 넘어 서까지 계속 이어졌다.

"나는 사실 지금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멕시코(Mexico) 메리다(Merida) 지역의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스케줄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이곳으로 달려온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제 교회는 젊은 일꾼들에게 맡기고 세계를 다니며 주의 종들을 교육하는 일에 몰입하려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 목사와 손잡고 이 일을 하려는 것입

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전도자들, 목회자들을 모아 젊은 일꾼들을 교육하여 침체된 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처음 시작은 미국 교회를 다시 살리려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곳으로 지속, 확장해 가야 할 사역이라 믿어요.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큰 교회들을 다녀봤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활력을 잃었어요.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구구절절 우리 목사님과 동일한 생각이요, 철학이었다. 주일 설교나 산상집회에서 전한 메시지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말씀이었다. 성령은 한 분이시니 당연한 일이라 믿는다. 하나님께서 김요한 목사님을 다시 보내신 이유는 다시 새로운 30년을 뒀신다고 하신 목사님에게 분명한 비전과 영감을 주시려는 것이요, 우리 교단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그날을 향해 달려가라는 격려라고 믿는다.

김 목사님을 모시며 참 겸손하고 오직 예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우리 목사님에게서 발견했던 그 순수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에 바쁘다고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진다면, 결국엔 다 넘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철칙이 되어야 합니다."

84세의 노구에도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서 청년보다 더 활기찬 열정을 보여주신 김요한 목사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 교단소식 ::

따뜻한 겨울 나세요!



첫눈이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서울 및 인천교회의 사랑의 연탄배달
(2016년 11월 26일)

첫눈이 내리던 지난 11월 26일, 서울과 인천의 교역자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 직원과 교육부 학생들은 각각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과 인천 금송재개발지구에는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사랑의 연탄을 제공한 것이다. 작은 나눔에 수혜자들은 크게 감사했고, 그들의 행복한 얼굴이 이 일에 동참한 자들을 무척 행복하게 했다.

당한 부(富)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많이 가진 자, 남들보다 더 가진 자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 덜 가진 자, 없는 자에게 베풀 의무가 그들에게 있다. 그래야 부가 빛이 나고, 정당하게 된다.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렌버핏이나 빌 게이츠 등 세계적인 재력가들이 나누는 삶을 살 듯 말이다.

얼마 전 목사님은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장로님들, 1년에 1억을 쓰면 10년이면 10억이면 됩니다. 그 많은 돈 쌓아놓지 말고, 구제하고 주의 일에 쓰세요.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25장에는 믿는 자 중에서 옳은 자와 그른 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양은 주님의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신다고 했는데,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한 자를 양이라 하였고, 반대로 주린 자를 보고도 못 본 체 하고, 벗은 자를 두고 자기만 잘 입은 자, 목마른 자들을 나 몰라라 하고 저만 목을 축인 자를 염소라 칭하셨다. 그리고 결국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개함이 없을진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생각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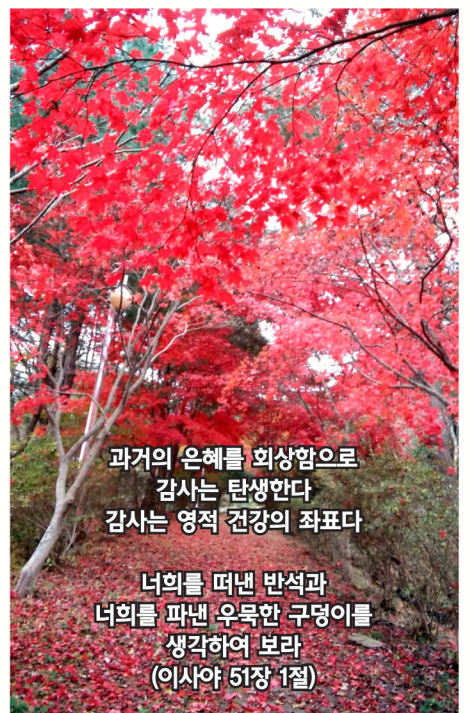
알프스를 구경하던 한 청년이 심한 갈증을 느낄 즈음 눈앞에 아주 깨끗한 호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청년은 이 물을 손에 받아 마셨습니다. 물은 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이제 갈증도 해소되었겠다 다시 본격적으로 알프스 산을 구경하려는 청년의 눈에 한 경고판이 보였습니다. "poison(독)", 이 호수의 물은 독이 들어 있다는 글귀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부터 청년의 몸에서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구토증세도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은 창백한 얼굴로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경고판을 본 후로 열이 나고 구토증세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poison(독)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라 poisson(낚시금지)이라고 쓰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토박이 아닙니까? 제 말이 확실합니다. 당신이 잘못 본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 청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도 내리고 구토증세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적극적인 생각은 적극적인 삶을, 나태한 생각은 나태한 삶을 낳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Dream is nowhere(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가 띄어쓰기 하나로 'Dream is now here(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로 바뀝니다. 생각 하나 차이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보이고, 생각을 키우면 길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탄생한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사야 51장 1절)